

5월 넷째 주 그룹큐티나눔

생명을 구하는 조서 에스더 8:1-17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너 시험을 당해(찬송 342장, 구 395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이 죽고 그의 가문도 멸망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차지하고, 모르드개는 하만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합니다(1-8절).

1) 하만이 죽은 뒤, 아하수에로왕은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맡깁니까(2절)?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반지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한 앙심을 갚고자 왕에게 거짓으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은 하만을 신뢰하여 그에게 왕의 반지를 빼주었다(3:8-10). 고대 세계에서 왕의 반지는 도장 역할을 했다. 반지는 음각 또는 양각의 방식으로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조각되었다. 따라서 왕의 반지를 받아 든 하만은 유대인 학살을 조장하는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랬던 왕의 반지 이제는 모르드개에게 왔다. 자신을 죽이고 유다인을 학살하려던 반지를 모르드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까?

2)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은 무엇이래 대답합니까(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왕은 자기 반지로 인친 조서를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고 못 박듯이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의 조서를 취소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만 왕은 이를 거절한다. 왕의 권위 문제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왕후 와스디의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도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1:19)고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 한번 내려진 조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엄격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하다.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하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모르드개가 왕의 반지로 새로운 조서를 쓸 수도 있다고 암시를 준 것이다.

나눔 1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작성한 유대인 학살 조서는 아직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완성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 모르드개는 유대인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9-17절).

1) 모르드개가 새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에서 유대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11절)?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가족)

모르드개는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조서를 만든다. 이 조서의 핵심은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이들에 맞서서 유대인 스스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다. 하만의 조서가 1월에 먼저 전국에 알려졌다. 조서에 적혀 있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날은 12월 13일 하루였다. 이것으

로 유다인에 대한 학살은 예고되었다. 살해의 위협 속에서 시한부 인생처럼 12월 13일을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점에서 모르드개의 조서는 유다인에게 사는 방법을 만들어준 것이다(3월 23일). 유다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학살하려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2) 유다인에게 조서의 내용이 허락된 날은 언제입니까(12절)?

아달월(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날이다. 즉 모르드개는 유다인을 학살할 수 있는 날에만 방어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조서를 쓴 것이다. 9:13-15에 따르면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 유다인을 학살하려는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받게 된다. 다만 수산에 사는 유다인에 한정된다. 하지만 모르드개가 처음 조서에 명시한 날짜는 12월 13일 하루였다. 자신들을 향한 학살이 예고된 날이었다. 처음부터 그 이상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3) 모르드개는 왕 앞에 다시 설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15절)?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었다.

모르드개는 이제 애통하며 입었던 베옷(4:1)을 벗고 고귀한 옷을 입었다. 애통의 옷이 기쁨의 옷으로 변화된 것이다. 모르드개가 입은 푸르고 흰 조복, 자색 가는 베 겹옷을 통해 그의 지위가 더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금관은 왕의 호의일 뿐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니다. 삶이 역전되었다. 단순히 모르드개의 삶만 역전된 것이 아니다. 모든 유다인의 삶이 역전되었다. 물론 이 역전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안다.

나눔 2 하만이 꾸미고 많은 사람이 동조한 유다인 멸절 계획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연의 연속 같고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업적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유다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나눠봅시다.

나눔 3 곤고와 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개(4:1)가 이제는 고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자색의 가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입니다(9:22). 하나님이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신 일이 있다면, 혹은 그런 일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기도하고 견디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 -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